

내년도 본예산 4557억원 편성

장수군, 지역경제 활성화·군민생활 안정화 예산 집중 편성 군의회 제출

장수군은 민선8기에 들어 2023년 본 예산으로 4,557억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4,313억원보다 244억원 증가(5.66% 증)한 금액으로 장수군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대비 262억원을 증액(6.55% 증)한 4,268억원을 편성했으며,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에 1,41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3.19%를 차지했고, △사회복지 분야에 17.10%인 73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7.04%인 300억원 △환경분야에 6.07%인 259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5.62%인 240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50%인 278억원 △산업,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59%인 239억원 △교육, 보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60억원 △예비비 및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15.13%인 64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8억원이 감액(△5.99% 감)된 289억원을 편성했으며, 분야별로는 △환경분야가 221억원으로 76.47%를 차지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51%인 59억원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 기타 분야 등에 3.02%인 9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군정 주요사업별로는 △농산물가격안정화 기금 60억원 △공공임대주택사업 39억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33억원 △도시가스 미공급 LPG배관망사업 31억원 △장수복합문화시설 조성 20억원 △가이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

업 27억원 △군립체육관 건립 17억원 △계남실내체육관 건립사업 22억원 △파크골프장 조성 10억원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설치사업 24억원 △산사면 농촌공간정비사업에 23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0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최훈식 군수는 "내년은 민선8기 공약사업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시대를 열어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과 더불어 군민이 다같이 즐거운 행복장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은 제344회 장수군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막바지 총력 대응

전춘성 진안군수, 국회 방문 현안사업 예산 반영 요청

전춘성 진안군수는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지난 21일 국회 예정 위소위 심사가 한창인 국회를 찾아 한병도·김두관·이용호·최춘식 의원

등 예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차례로 면담하며 국가 예산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주요 사업으로 국비 증액이 필요한 번암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신덕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지역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며 예산반영에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소병훈 농해수위원장과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을 만나 진안군이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의 2023년 공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며 미래 먹거리로 각광 받는 곤충산업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전춘성 군수는 "번암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국립지력관리사업치유원 조성사업의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연계해 2023년에 필히 반영돼야 하는 사업이다"며 "내년도 예산 최종 확정 시까지 국비확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춘성 군수는 지난 21일 국회 예정위소위 심사가 한창인 국회를 찾아 한병도·김두관·이용호·최춘식 의원 등 예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차례로 면담하며 국가 예산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무주군, 군도8호선 가로수 조성사업 추진

무주군이 부남면 대타마을에 신설된 군도8호선 무주읍~부남면 우회도로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수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금강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가로수 거리를 조성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경관 개선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군은 군도8호선 무주읍~부남면 우회도로 일원에 사업비 2억5천여만 원을 들여 신설된 도로와 금강의 경관을 고려한 이팝나무 250주와 무궁화 71주 등 꽃나무를 식재했다.

군도8호선 신규 개통구간의 가로수 조성사업은 7월에 계획, 현장여건에 맞는 수종 선정 및 식재구간을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개통일에 맞추어 가로수 식재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그린네트워크 확충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통한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산골영화제 다양한 수익방안 만들어야”

무주군의회 오광석 부의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익성 조명



무주군의회 오광석 부의장(사진)이 올해 10회째 개최된 무주산골영화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광고와 유료관람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지난 21일 열린 제29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산골영화제의 운영방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무주산골영화제가 무주군을 알리는 대표적인 축제이고 외부관광객을 불러모으는 효과도 크다. 그런데 군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 같다”며 축제 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산골영화제의 사업비 가운데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8억5000만원 규모로 군비가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축제가 든 먹는 하마가 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광고 유치와 유료관람 수익

을 비롯해 다양한 수익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또한 “무주군에서 유치한 전국단위의 체육경기가 많이 열리는 데 참가자들이 경기만 하고 떠날 게 아니라 무주를 경험하고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중 대회가 열리는 시기가 하반기로 편중돼있으며 사계절 체육경기가 열리는 무주군이 되도록 대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무주군은 산골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관람하러 온 사람들의 70%가 숙박을 계획할 만큼 영화제가 무주군을 홍보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답변했다. 이어 영화제가 재정압박 요인이 되지 않도록 수익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오광석 부의장은 무주군 내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며 비지정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업을 적극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장계면 금덕고을 농촌다음 복원사업 준공

장수군은 22일 금덕리 주막장에서 장계면 금덕고을 농촌다음 복원사업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이 참석해 장계면 금덕고을 농촌다음복원사업의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장계면 금덕고을 농촌다음복원사업은 금덕저수지 수변 친수공간 및 기존 농로를 활용한 순환산책로 조성, 주민참여 경관농업 조성으로 문화여가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총사업비 20억원이 투입돼 금덕 주막광장, 금덕 8경 전망대, 금덕 별터뜰 탐방로, 상수리 쉼터, 금덕 숲길 복원 및 지역역량강화 등이 추진됐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 가져

진안군은 22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힘을 보태는 ‘사랑의 땀감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사랑의 땀감 나누기’는 숲가꾸기 및 산림패트롤 등 경관녹지 사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 난방용 땀감을 지원하는 행사다.

진안군은 2013년부터 올해로 10년째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를 추진하며 총 371세대에 1,240톤의 땀감을 전달했다.

이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절감은 물론 따뜻한 온정도 함께 배달해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올해 대상자는 11개 읍·면에 서 추천된 저소득 취약계층 30세대로 세대 당 4톤씩 총 120톤의 난방용 땀감을 30일까지 대상 세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부산물을 재활용, 산불 및 집중호우 등 산림재해를 예방, 이웃사랑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동화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

장수군이 안정적 상수도망을 구축해 수질 및 수위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주민 불편 문제 해소에 나선다.

군은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사업비 60억원을 확보해 번암면 동화리·지리리 일원에 지방상수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물 복지 사각지대 농어촌 상수도 확대)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기된 주민불편을 반영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라북도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한 결과이며, 사업비 확보와 반영을 위해 전라북도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결실이다.

사업은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번암면 동화리·지리리 일원의 삼거, 광대, 원지, 상동, 하동 등 5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며, 2023년에는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 협의를 빠르게 추진해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해 주민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제14기 반딧불 농업대학 졸업식 가져

무주군은 22일 농업기술센터 농민의 집 농민마당에서 제14기 반딧불 농업대학 졸업식을 가졌다. 무주군의 반딧불 농업대학은 농업전문가를 양성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취지에서 운영된다.

이날 졸업식은 개회식에서 공로패 및 상장 수여, 졸업장 수여, 격려사, 수료소감문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사과과 황영웅 씨가 반딧불 농업대학 발전과 제14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또 청년농업인과 김양수 씨와 치유



농업과 박수훈 씨가 학과운영에 성실하게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반딧불 농업대학장 공로상을 받았으며, 사과과 한정욱 씨 등 8명도 반딧불농업대학장 우수상을 수상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